



2014년 국가직 9급 T형

분석 및 해설 (동행 한국사 박영규 제공)

· 분석

1. 시대별 문항 분석

상고사	고대사	중세사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사	일제사	현대사
1문항	4문항	4문항	1문항	6문항	0문항	2문항	2문항

2. 단원별 문항 분석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10문항	3문항	4문항	3문항

3. 유형별 문항 분석

자료제시형	질문집단형
13문항	7문항

4. 성격별 문항 분석

사기추론형	개념이해형
8문항	12문항

· 총평

- 2014년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는 2013년 국가직·지방직 9급 문제에 비해 **깊이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발문이나 자료만 보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작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을 것이라 보인다.
- 가장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고구려의 사회상을 묻는 T형 18번 문제, 한·중·일을 묶어서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를 묻는 T형 3번 문제,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T형 7번 문제, 고려의 형률을 다룬 T형 19번 문제 등이다.
- 2013년 국가직·지방직 9급 문제에 비해 **자료제시형 문항은 줄었으며** (2013년 지방직 19문항, 2014년 국가직 13문항) **개념 이해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하나의 개념을 단순히 다루지 않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T형 7번 문제 : 천주교) 천주교의 특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박해 사건과 관련 인물, 천주교에 비판적인 인물까지 알고 있어야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그 외에 T형 13번 문제(홍대용 균전제), T형 17번 문제(녹읍, 왕도사상, 민정문서), T형 20번 문제(고려의 중류층), T형 19번(고려의 형률제도) 등이 있다.
- 2014년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7급 문제와의 관련성**이다. 국가단위로 출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9급 문제는 7급에서 다루는 내용과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 2014년 국가직 9급 문제에는 7급에서 출제되었던 용어와 개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T형 18번 : 고구려 관나부인 관련 문제, 2012년 국가직 7급 문제 출제, T형 20번 : 남반과 향리의 역할 문제, 2012년 지방직 7급 문제)
- **기존의 공무원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료 해석형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는데 (T형 3번 문제 :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번 출제된 문제는 자료를 통해 17,18세기의 중국과 일본과 조선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다.
- **사기추론형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왕조사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가 다수 보인다. 하지만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다. (T형 1번 : 정조의 업적, T형 2번 : 공민왕의 업적, T형 6번 : 순조 때 특징 등)

· 학습 대책

- 올해 국가직 문제는 작년에 너무 쉬웠다는 평을 받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기존 9급 한국사 시험을 뛰어넘는 **지엽적인 것을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있고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념을 학습할 때에서 관련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핵심적인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살펴며 시대별로 깊이있게 이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동(同)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 이번 9급 국가직 문제에서 7급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렇다고 7급 수준의 심화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 **7급 기출에 나왔던 개념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학습해도 된다.** 최근 3개년 7급 국가직·지방직 기출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다.
- **근현대사의 비중**은 2013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역대 문제에서 보았듯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출제되는 만큼 **기출 수준의 기본 학습**만으로 충분하다.
- **9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는 경찰직 한국사 문제와 시뮬 다른 점**이 있다. **공무원 문제는 선지 내에서 단어상 오류가 나서 오답이 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체적으로 발문과 자료를 통해 관련된 시대, 사상, 특징 등을 묻는 문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암기를 지양하고 정확한 시대 파악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무원 문제 특징 (2014년 국가직 T형 18번 문항 2번 선지)	경찰직 문제 특징 (2014년 1차 경찰직 8번 문항 @보기)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선지는 연나부를 절노부의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다. 계루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던 나라가 고구려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한국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대 파악과 인과관계, 관련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 등이 필요하다.	최승로가 올린 것은 시무 10조가 아니라 시무 28조이다. 경찰직 문항은 문장 내에서 오류를 만들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를 다수 출제한다. 경찰직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2014년 4월 20일
합격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동행 한국사 박영규

현(現) 한국고시학원
 한국사 전임



1. 밑줄 친 ‘국왕’ 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라고 하였다.

- ①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④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정답 : ③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에서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정조임을 알 수 있다. 정조는 화성 행차시 백성들의 격쟁을 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척신세력을 제거하는 강력한 준론 탕평을 추진하였다.

- ③ 정조 때에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난전을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노론과 시전상인의 결탁을 끊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오답 확인

- ① 금위영은 숙종 대에 수도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한 5군영 중의 마지막 군영이다.
- ② 북벌론은 효종과 숙종 때 추진되었다.
- ④ 연산군 때 폐지된 신문고는 영조 때에 부활하였다.

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왕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진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③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 ②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는 변발과 호복을 하지 않았던 공민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민왕은 즉위 이후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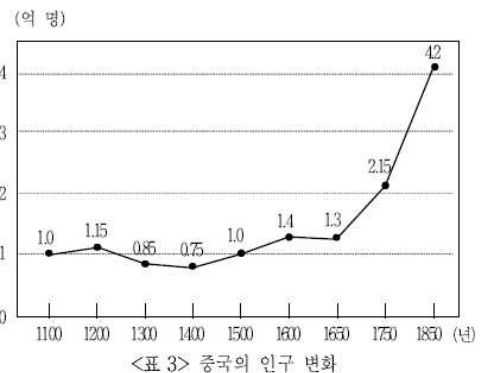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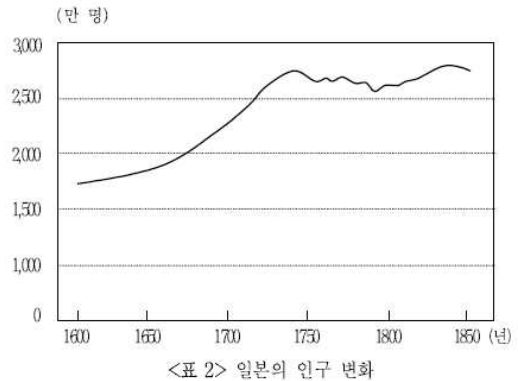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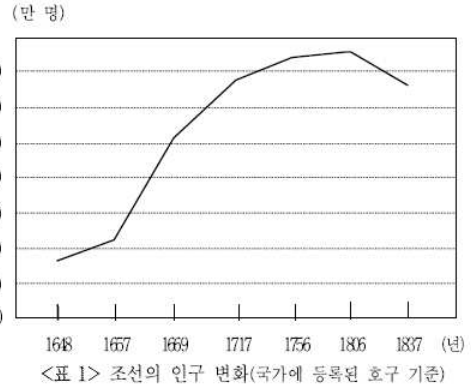
오답 확인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은 조선 시대의 관청이다. 세

조 때 설치되었다.

- ③ 동국병감은 조선 전기 문종 때 김중서가 주도하여 편찬된 병서이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대외 전쟁사를 정리한 사서이다. 원나라의 침략과는 관련이 없다.
- ④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되었다.

3.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 ② 명대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청대 초기 3억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중반에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 ③ 17세기~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정답: ③ (난이도 상)

③ 17세기~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오답 확인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19세기 초가 되면 소폭 감소한다. 이는 19세기 초반에 자연재해와 콜레라 등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인구 유입은 없었다.
- ② 명은 14세기 후반에 건국되었다. 당시의 인구는 7500만 명 정도로 보인다.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시기는 17세기로 당시에는 청이 건국되었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부터 정체 현상을 보인다.

4.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 ②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물렸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정답: ① (난이도 하)

밑줄 친 '이 농서'는 농상집요 이후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다. 농사직설은 15세기 세종 때 편찬된 것으로 15세기에는 도화서 화원인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유명하다.

오답 확인

- ② 조계종은 무신 집권기에 지눌이 성립하였다.
- ③ 윤희는 17세기 후반 숙종 때 경신환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5. 밑줄 친 '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움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첩장(高麗摺狀) -

- ①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②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정답: ①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에서 '강화로 도움', '진도로 도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최우 때 조직된 삼별초임을 알 수 있다. 삼별초는 최우 정권 때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조직이며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로 천도하였을 때 함께 이동하였으며 개경 환도 이후 진도, 제주도 등에서 몽골에 항쟁하였다. 삼별초가 일본과의 교섭도 적극 전개하였는데 일본에 남아 있는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摺狀不審條條)』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오답 확인

- ② 최충헌이 신변보호를 위해 도방을 설치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고려 정종 때 광군이 조직되었다.
- ④ 고려 공민왕 때 유인우, 조돈, 이지춘 등을 중심으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6.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 비변사등록 -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③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④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에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등의 내용으로 보아 1811년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임을 알 수 있다. 홍경래의 난은 청천강 이북까지 점령하였다.

② 순조 때인 1801년에는 6만여명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최제우는 철종 때인 1860년 경주에서 동학을 창시하였다.
- ③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고종 때인 1866년에 일어났다.
- ④ 삼정이정청은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던 1862년 철종 때에 설치되었다.

7.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관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④ 신유사옥 때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정답: ① (난이도 상)



- ① 기해박해는 벽파 세력인 풍양 조씨가 집권하여 오가작통법과 척사운음을 이용하여 박해한 것으로 프랑스 신부 3인과 상재상서를 저술한 정하상이 순교하였다. 정약용, 정약전 등이 유배를 가게 된 계기는 순조 즉위 직후에 일어난 신유박해 때문이다.
- ② 이익의 제자 안정복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정조 때 일어난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은 최초의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진산 사건, 신해 박해라고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신유 박해 결과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나타나자 황사영은 북경의 주교에게 신유박해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8.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황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파,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답 : ③ (난이도 하)

- ③ 18세기 숙종 때부터 노론 내에서 호락논쟁이 전개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확인

- ① 정도전은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16세기 사림 세력은 왕도정치를 중시한 '춘추'를 강조하였다. 춘추는 공자의 저서로 5경의 하나이다. 춘추는 공자의 고향인 춘추 시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역대 임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후대의 사표로 삼았다. 또한 임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경계로 삼아 왕도 정치의 이상을 담았다.
- ②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인물은 율곡 이이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정약용은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김정희는 고증학적 성격의 실사구시 실학을 발전시켰다.

9.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①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 ②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 ③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산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정답 : ④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에서 '화성 제암리' 등의 내용으로 보아 3.1운동임을 알 수 있다. ①②③ 모두 3.1운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인물은 김규식이다. 산규식은 1912년 상하이에서 동제사를 조직해 이사장이 되었고 1913년 상하이에 박달학원을 설립하였다. 1915년 상하이에서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단을 만들었고 1차 대전 이후 김규식 등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되는 일을 주도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법무총장에 임명되고 임시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21년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0.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 ④ (난이도 하)

- ④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였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3차 개헌)

오답 확인

- ① 5.10총선거는 남한만 총선거로 1948년에 실시되었다.
- ② 농지개혁은 1950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실시되었다.
- ③ 4.19 혁명 이후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확산되었다.

11.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의 금석문은?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麻鏡)'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광개토왕비
- ② 집안고구려비
- ③ 중원고구려비
- ④ 영일냉수리비

정답 : ③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는 5세기 고구려의 영토를 확인할 수 있는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이다.

오답 확인

- ①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 건국설화, 광개토 대왕의 업적(백제 격퇴, 왜구 격퇴 등), 수묘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집안고구려비는 2012년 중국 길림성 집안(지안)에서 발견된 고구려 비로 현재 고국양왕 또는 광개토대왕 때 건립된 비석으로 추정하고 있다.



- ④ 영일냉수리비는 신라 지증왕 때 세운 비석으로 여러 부의 대표자들이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을 판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의 6부 체제, 갈문왕, 관등 등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12.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에 있었다.

-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정답 : ② (난이도 하)

제시된 자료에서 '불립문자', '견성오도' 등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유행한 선종임을 알 수 있다. 선종은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지방 중심으로 선종 9산이 형성되었다.

오답 확인

- ① 교종은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③ 대체적으로 선종 9산은 왕실이나 중앙 귀족이 아니라 호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도의보다 조금 늦게 귀국한 홍척은 흥덕왕과 같은 왕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④ 백제 성왕 때 겸익은 소승 불교 계열인 율종의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번역까지 하였다.

1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재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①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②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성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③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④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 ② (난이도 중)

제시된 자료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홍대용의 글이다. 홍대용은 증상학파로 『임하경륜』에서 균전제를 주장하였으며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실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③ 허목의 『동사(東事)』는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 남인 입장에서 북벌 운동과 봉당 정치를 비판하였다.
 ④ 영조 때 정상기는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편찬하였다.

1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령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③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④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정답 : ④ (난이도 중)

- ④ 1940년에 창설된 한국 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 중심의 조선 의용대 세력이 합류하였다. 1942년 김두봉 중심으로 연안에서 조직된 조선 의용군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개편된 것으로 한국 광복군과는 관련이 없다.
 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천(이청천 이라고도 함), 참모장은 이범석이었다. 옳은 설명이다.
 ② 1943년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까지 파견되어 영국군과 작전을 수행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③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특수 훈련을 실시하고 비행대까지 편성하였으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15. 8·15 광복 직후에 결성된 정당의 중심 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ㄴ.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ㄷ.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ㄱ	ㄴ	ㄷ
① 조선인민당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② 조선신민당	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③ 조선신민당	한국민주당	국민당	
④ 조선인민당	한국민주당	국민당	

정답 : ④ (난이도 중)

여운형은 중도 좌파적 성격의 조선인민당을 만들었고 송진우·김성수 중심의 세력은 우익 정당인 한국민주당을 만들었다. 안재홍 등의 중도 우파는 국민당을 설립하였다. 그밖에 조선신민당은 북한의 좌익 정당으로 연안파 세력인 김두봉이 주도하였고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은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의 여당이다.



합격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박영규의 동행 한국사

- ④ 민정문서에 나오는 내시령답, 관모답, 촌주위답, 마전 등은 농민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또한 농민을 백정으로 부를 때에는 고려 시대이다.

16.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남한 북한

- | | |
|-------------|------------|
| ① 제주 빌레못 유적 | 상원 검은모루 유적 |
| ② 공주 석장리 유적 | 웅기 굴포리 유적 |
| ③ 단양 상시리 유적 | 덕천 승리산 유적 |
| ④ 연천 전곡리 유적 | 평양 만달리 유적 |

정답 : ② (난이도 중)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는 공주 석장리와 웅기 굴포리 유적이다. (1960년대 초)

오답 확인

- ① 제주 빌레못 유적은 1973년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이며 용암동굴 내에 다양한 동물 화석이 발견되었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은 동물 화석과 뿔석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단양 상시리 유적은 남한 최초로 구석기 시대 사람 화석이 출토되었다. 덕천 승리산 유적은 한반도 내에 최초로 구석기 시대 사람 화석이 발견되었다.
- ④ 연천 전곡리는 1970년대 후반 주한 미군 병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슬리안계의 주먹도끼와 찌개가 동시에 출토되었다. 평양 만달리 유적은 1979년에 발굴된 구석기 후기 유적지로 다양한 동물 화석과 인골 화석, 흑요석과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17. 통일신라시대 귀족경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歲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①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세로써 나오게 되었다.
- ②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안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정답 : ② (난이도 하)

밑줄 친 '이것'은 신문왕 때 폐지되고 경덕왕 때 부활하였던 녹읍이다. 녹읍을 받은 자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력 동원, 공물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오답 확인

- ① 왕토사상은 성덕왕 때 지급된 정전 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왕토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 초기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정치가 성립될 때부터이다.
-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자는 녹읍을 지급하였다.

18.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처녀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혼의 실례를 보여준다.
- ②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 ③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 ④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정답 : ④ (난이도 상)

제시된 자료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인 서옥제에 대한 내용이다.

- ④ 김흠운은 김흠돌의 동생으로 자신의 딸을 신문왕과 혼인시켜 신문왕의 장인이 되었다. 이후 그의 딸은 효소왕을 낳았다.

오답 확인

- ① 고국천왕은 아들 없이 죽자 왕후 우씨에 의해 연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왕이다. 이러한 혼인은 고구려의 형사취수제의 실례를 보여준다. 한편 고국천왕 때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단행하였으나 고국천왕은 아들 없이 죽었고 이후 산상왕의 아들인 동천왕이 즉위함에 따라 부자 상속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② 고국천왕 때부터 절노부(연나부)에서 왕비가 배출되었다.
- ③ 장발미인으로 유명한 고구려 중천왕의 소비인 관나부인은 고구려 관노부 출신으로 중천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왕후 연씨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질투죄로 바다에 던져졌다.

19.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 ②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 ③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 ④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 ① (난이도 상)

- ① 고려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의 성문법인 고려율을 만들었다. 고려 율은 당률을 참작한 71조의 형법과 보조법률로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법조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습법을 적용하였다.

오답 확인

- ② 2차 갑오개혁 까지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독립되지 않았다.
- ③ 고려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실제로 집행된 실행주위가 우위에 있었다. 부여와 고구려의 1책 12법의 경우가 배상제이다.
- ④ 고려와 조선은 기본적으로 태·장·도·유·사의 5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 고려시대에는 귀족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또는 ‘종류층’ 이라 불리는 신분층이 존재하였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內僚職)이다.
- ②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 ③ 서리는 중앙의 각 사(司)에서 기록이나 문부(文簿)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하였다.
-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정답 : ④ (난이도 중)

고려 시대에는 과거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적으로는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와 명경과에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다.

오답 확인

- ① 남반은 궁중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왕 측근의 내료직이었다. 내료(內僚)는 궁중에서 전명 등 잡무에 종사하던 벼슬아치의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② 직업군인으로 하급 장교는 군반으로 종류층에 포함된다.
- ③ 서리는 중앙 관청의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로 잡류라고도 한다.